

전국적으로도 신규 감염자 수는 감소경향이기는 하지만 아직 기대한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고, 감염자 총수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전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한 「긴급사태선언」이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본 현은 현민의 고심과 노력에 의해 신규 감염자 수나 감염자 총수에 상당한 개선이 보여지기는 하나, 방심하면 언제든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본 현으로서는 이번 연장에 입각하여 지금까지의 감염확대 방지대책을 지속하면서, 본 현의 실정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의 보급·정착을 전제로 한 감염확대 방지와 사회경제활동 유지의 양립을 추진해 간다.

※신종 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선언 대상구역 : 전 도도부현

※긴급사태 선언 대상구역 중 「특정경계 도도부현」

13 도도부현 : 도쿄도, 오사카부, 홋카이도,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 이시카와현, 기후현, 아이치현, 교토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1 감염확대 방지대책의 계속에 대하여

(1) 현민에 대한 요청

5월 31일(일)까지 현민 여러분께 아래 사항을 요청한다.

- ① 해외도항 및 도도부현을 넘는 불요불급의 이동을 자숙할 것
 - ② 해외에서의 귀국·입국 및 특정경계 도도부현에서 귀현·전입하신 분은 2주일간 불요불급의 외출을 자숙함과 동시에 건강관찰을 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신속하게 상담할 것
 - ③ 일상 생활에서 꼼꼼하게 손 씻기나 기침 에티켓은 물론, 외출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놀러 나갈 때는 실내보다 실외를 선택, 사람과의 간격은 가능한 2m 유지하기, 대화할 때는 대면을 피하는 등 「새로운 생활양식」을 실천할 것
 - ④ 「3가지 조건 (환기가 나쁜 밀폐공간, 많은 사람이 밀집, 근접한 거리에서 밀접한 대화)」이 겹친 장소의 출입을 피할 것. 장보기나 산책, 외식 등의 경우에도 이른바 3가지 조건이 겹치는 장면을 피할 것
- 또한, 3가지 조건이 보다 농밀한 형태로 겹치는 번화가의 접객을 수반하는 음식점 등 (※)의 출입을 피할 것
- ※ 「접객을 수반하는 음식점 등」
바, 나이트클럽, 노래방, 라이브하우스 등 유흥시설
- ⑤ 발열이나 감기증상 등이 있는 분은 무리하지 말고 일이나 학교를 쉬고, 외출을 삼갈 것

(2) 사업소의 감염방지 대책

사업소에서의 사람간 접촉기회의 저감 등을 위해 아래 사항을 요청한다.

- ① 재택근무(텔레워크)나 시차 통근, 자전거 통근의 적극적인 활용
- ② 발열 등 감기 증상이 있는 종업원의 출근면제(텔레워크 지시포함) , 외출 자숙 장려
- ③ 출장으로 인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화상회의 이용 등
- ④ 사업소내 및 통근·외근시 감염방지를 위한 행동 (손 씻기, 기침 에티켓, 환기업무 등) 철저
- ⑤ 기본적인 감염대책을 계속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이행·정착을 위해, 업종별 가이드라인 책정 검토 현황을 주시하고 추진할 것. 또 본 현에서 선행하여 추진중인 호텔·여관이나 음식점 등에서 자주적 감염방지 방안을 더욱 추진할 것

(3) 관광시설 등 집객시설 및 유기사설

- ① 관광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의 집객시설에서는 3 가지 조건을 피하기 위해 입장자의 제한이나 사람간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등, 계속하여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할 것
- ② 유기사설은 계속하여 5 월 31 일(일)까지 오이타현 전역의 유기사설 (마작점, 파칭코점, 게임센터 등)에 대하여 신종 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 24 조 제 9 항에 근거하여 사용정지(휴업)의 협조를 요청한다.
단, 감염자의 발생현황 등에 입각하여 5 월 11 일(월)부터는 현외이용자의 입장 제한, 3 가지 조건을 피하는 등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는 점포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4) 대규모 이벤트 등의 취급

- ① 전국적이며 대규모의 이벤트 등, 3 가지 조건이 겹치는 다수 인원의 모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당분간 자숙을 요청한다. 단, 주최자가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감염방지 대책을 충분히 강구한 다음 신중하게 행하도록 요구한다.
- ② 비교적 소수 인원으로, 더불어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벤트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감염방지 대책을 적절히 강구한 다음 실시해도 무방하다. 또한 만연 방지에 있어서는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접촉확인 어플 등 SNS 등의 기술을 활용한 이벤트 참가자에 관한 감염현황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의 활용도 검토한다.

2 학교의 대응에 대하여

(1) 현립고등학교·중학교는 5 월 8 일(금)까지 임시휴교를 연장하여, 5 월 11 일(월)부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감염리스크를 낮출 대책을 강구한 다음 현내에서의 발생현황 등을 주시하면서 교육활동을 재개한다. 또 당분간 학년별로 각각 다른 등교일을 설정한다. 또한, 공공교통기관의 통근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교육활동 시간은 9 시부터 16 시 30 분까지로 하며, 사립학교도 포함하여 학생 이용편의 분산, JR 열차내·역구내에서의 통학 시간대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형버스 운송도 재개한다.
교육활동의 실시에 있어서 3 가지 조건이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업은 학급을 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등하교시를 포함하여 마스크 착용의 철저, 손가락 소독, 매일의 검은·빈번한 환기에 더하여 체육수업시 탈의실의 일제사용을 피하는 등, 만전의 감염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2) 현립특별지원학교는 5 월 8 일(금)까지 임시휴교를 연장하여, 5 월 11 일(월)부터 10 일간 정도를 목표로, 개별 아동학생의 장애 현황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준비가 된 학교부터 교육 활동을 재개한다.
단, 당분간은 분산등교로 하며, 학급을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실시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빈 교실을 이용하는 등, 밀집상태를 피할 수 있는 궁리를 한다.
스쿨버스는 감염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간격을 넓혀서 좌석배치, 차내 환기 등의 대책을 철저히 하여 운행한다. 승차 인원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버스를 증차함과 동시에 학교 실정에 따라 보호자 송영을 요청한다.

(3) 부활동은 등교일의 학생에 한하여 가능하나,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활동을 제한함과 동시에 3 가지 조건이 겹치지 않도록 실시내용이나 방법을 궁리하여 행한다.
단, 합숙이나 타교와의 교류(합동연습, 연습시합)는 당분간 금지한다.

(4) 학교급식은 우유 제공 체제나 식재 확보의 목표가 세워진 시점에서 안전·안심의 제공 체제를 갖춘 다음에 개시한다.

(5) 5 월에 실시예정인 숙박을 동반하는 학교행사는 연기 혹은 중지한다.
또, 교내에서 숙박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3 가지 조건이 겹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6) 아동학생 또는 교직원의 감염이 확인되었을 경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당 아동학생 등의 출석정지 조치를 취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학교의 일부 혹은 전체 임시휴교 조치를 취한다.

(7) 시정촌립 초중학교·의무교육학교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상기 대응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요청한다.

3 현립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1) 현립미술관, 현립도서관, 선철사료관, 역사박물관, 매장문화재센터는 5월 10일(일)까지 휴관하며, 감염방지 대책을 강구한 다음 5월 11일(월)부터 재개한다. 단, 당분간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학습실 및 연수실 등)의 이용은 제한한다.

또한, 현립도서관은 개관시간을 단축한 다음 도서 대출을 한다. 아울러 체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장서검색을 한 다음 내관하도록 안내한다. 입장시는 손가락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도모한다.

(2) 카카지청소년의 집, 코코노에청소년의 집은 5월 10일(일)까지 휴관하며, 감염방지 대책을 강구한 다음 옥외시설과 체육관(플레이 홀) 이용을 5월 11일(월)부터 재개한다. 단, 당분간 숙박 이용은 하지 않는다. 또 식당, 플라네타리움관은 재개하지 않는다.

(3) 체육시설은 5월 10일(일)까지 휴관하며,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방지 대책을 강구한 다음 트레이닝룸을 제외하고, 5월 11일(월)부터 재개한다.

(4) 현립사회교육시설 등의 아래에 해당하는 대관행사는 계속하여 주최자에 자숙을 요청한다.

- ① 전국적이며 대규모의 행사
- ② 3가지 조건이 겹치는 행사

4 생활·사업·고용계속 지원에 대하여

(1) 생활의 계속 유지를 위한 지원으로써 생활자금의 걱정을 하고 계신 분께 긴급소액자금 등의 특례대출(무이자·보증인 불필요)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거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분 등에 대한 주거확보 급부금을 지급한다.

또한, 시정촌이 특별정액 급부금을 신속하면서 틀림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사업·고용의 계속 유지를 위한 지원으로써 고용조정 조성금이나 지속화 급부금의 급부, 무이자용자 등에 대하여 상공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한다.

① 고용조정 조성금에 대해서는 오이타현 사회보험노무사회내에 설치된 고용유지 지원센터에서 소규모사업자 등의 신청을 지원한다.

② 중소기업은 최대 200만엔, 개인사업주는 최대 100만엔이 급부되는 지속화 급부금에 대해서는 급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상공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한다.

③ 중소기업의 금융대책으로써 민간금융기관에서도 실시가능한 무담보·무이자 금융제도나 벤처기업의 사업계속에 대하여 융자자금 활용을 추진한다.

(3) 현민이 하나가 되어 감염방지 대책을 실시하는 현내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관·호텔에 대해서는 오이타현 여관호텔 생활위생동업조합을 중심으로 숙박시설의 감염증 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음식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지역내 음식점을 응원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방안을 지원하는 등 세심하게 대응한다.

(4) 이러한 지원은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으며 반주형으로 지원해 나간다.

감염확대 방지에 따라 영향을 받은 사업자 상담창구 (콜센터: 0120-636-692)